

## 가금유전자원에 대한 중복보존 강화

### ◆ 국내 가금유전자원의 보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복보존

- 가금유전자원은 오직 살아있는 개체로만 보존 가능
-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질병 발생에 대비한 보존대책 필요

### ● 핵심성과

- 중복보존 장소 : 축산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(전북 남원)
- 순수혈통의 재래닭 등 가금 6품종 27계통 3,050수 중복보존
  - 축산원 가금과(충남 성환) 보유품종 : 5품종 12계통 1,401수(인수)
  - 관리기관 및 농가 보유품종 : 3품종 15계통 1,649수(부화-육추-선발)  
종란인수 5,085개 부화 3,492수 육추 선발(외모 및 발육)  
재래종 12계통 1,327수, 백색레그혼 2계통 284수, 아메리카나 1계통 38수

### ● 실용화(산업화) 계획

- 중복보존 체계화 및 원집단의 다양성 보존에 활용
  - 세대 갱신시 원집단 및 중복보존집단 동시교배 활용
- 중복보존집단을 활용한 집단 간 특성비교
  - 동일 환경에서 동시 사육에 의한 특성 비교로 특성 평가의 정확성 확보

### ● 기대효과

- 악성질병 발생 등에 의한 중요 가금유전자원의 멸실 방지
- 순계의 다양성 보존으로 닭 육종 소재로의 활용 가능 및 재래종을 이용한 농가소득창출



〈품종, 개체 식별을 위한 익대 부착〉



〈백신접종〉



〈케이지 육추〉



〈1주령 외모 특성 비교〉



〈16주령 깃털 특성 비교〉



〈세대갱신을 위한 인공수정〉

□ 담당자 : 연성흠, 031-290-1604, yeonsu58@korea.kr